

출신학교에 따른 청각장애대학생의 쓰기에 나타난 조사 오류에 관한 연구*

옥정달**

나사렛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요약》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 중에서 수반장애가 없는 32명을 대상으로 직접 작성한 문장을 분석하여, 청각장애대학생의 출신학교별 조사사용 오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은 출신학교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2를 사용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대학생의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 간의 대치, 생략, 첨가 등의 조사 오류별 발생률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각 유형별 조사 오류 발생률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조사 오류 발생 순위에서 초·중·고 학생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일반학교 출신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청각장애대학생의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 간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등의 격조사에 대한 오류 발생 비율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각 격조사 오류 발생률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격조사의 대치 오류 발생 순위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각 격조사의 대치 오류 발생률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격조사 오류에서도 초·중·고 학생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일반학교 출신들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각장애학교의 수화라는 특수한 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의 조사 오류 및 격조사 오류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구화환경과 비교했을 때 조사사용 및 격조사 사용 실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킬 만큼 지장을 주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청각장애, 청각장애대학생, 농, 조사사용, 문장 분석

* 이 논문은 2009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okjdal@kornu.ac.kr)

I.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언어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글쓰기 능력은 학교 교육을 받거나 학문적인 성취를 이룩하고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능이다(박덕유, 2002).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장구조의 선택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조직하여 표현하더라도 뜻을 전개해 나갈 문장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다면 무질서한 언어의 배열에 그칠 뿐이다(하현주, 2003). 올바른 문장은 문법이 맞고, 문장구조가 복잡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으면서 어휘의 선택이 적절하고, 이를 읽는 독자들이 논리적 사고로 수궁이 가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고도로 복잡한 사고 과정 및 문제 해결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고등 정신기능이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필자의 사상과 감정 및 경험으로부터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표현하는 과정이다. 쓰기 기능의 획득은 말하기 기능을 습득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며, 청각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각장애는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부터 놀이, 게임 등과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제한을 두어 말하기는 물론 읽기, 쓰기, 등의 2차 언어발달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주게 된다(Lynas, 2005; Moseley & Bally, 1996; Ouellet & Cohen, 1999). 음성언어 습득의 곤란은 문자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데도 큰 지장을 주게 된다. 특히 문자언어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항상 평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청각장애아에게 문자언어의 이해 및 표현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청각장애아의 문자언어의 특성은 복문보다 단문의 사용이 많고(강창욱, 1994; Simmon, 1962), 어휘는 건청인 학생들에 비해 매우 지체되어있으며(Day, 1986; Genovese, et al., 2005; Kyle, 1980; Marco et al., 2007; Pien, 1985), 한정된 어휘의 사용으로 문장의 다양성이 부족하고(King et al., 1985; Marschk & Harris, 1996; Moores, 1987; Quigley et al., 1984; Wilbur & Quigley, 1975), 문법형태소에서는 조사와 어미 등에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이춘섭, 1978; 손일수, 1989; 강창욱, 1994; 한요섭, 2003).

한국어는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교착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교착어는 문법적 기능이 접사나 어미에 의해 차례로 덧붙여서 수행되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영근, 남기심, 2007). 그러므로 명료한 문장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을 위해서는 적절한 문법형태소의 사용이 중요하다(김미숙, 2004; Brown, 1984). 특히 조사는 한국어의 첨가어적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법형태소로서, 단어 또는 어절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전해 주기도 한다(남기심, 고영근, 2007).

조사는 그 단독으로 문장의 성분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명사구에 결합해서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여러 문장 성분을 실현하며,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누어진다(이관규, 2002). 격조사는 체언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에 대한 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한다. 격조사에는 주격, 서술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의 7가지가 있는데, 청각장애아동의 조사사용 오용율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격조사로, 특히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목적격조사로 나타났다(이춘섭, 1978; 우장석, 1984; 손일수, 1989; 강창욱, 1987; 유재이, 1990; 시옥순, 2001; 하현주, 2003; 한효섭, 2003; 류은정, 2005; 송혜경, 2006; 김용세, 2009).

주격조사는 체언에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로, ‘가’와 ‘이’가 있으며, ‘가’는 자음으로 된 체언 아래에서는 ‘이’로 바뀐다. 목적격조사는 선행하는 명사로 하여금 후행하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을’과 ‘를’이 있는데, ‘을’이 모음으로 된 명사 아래에서는 ‘를’로 바뀐다. 부사격조사는 그것이 붙는 체언으로 하여금 부사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형태가 많고 그 의미가 또한 다의적이어서 그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다른 격조사들은 생략되어도 의미전달이 가능한 반면 부사격조사는 생략되면 의미전달이 어려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남기심, 고영근, 2007).

청각장애아의 조사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아의 조사오용 양상과 경향에 대한 이춘섭(1978)의 연구에서는 주격조사와 부사격조사의 오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격조사를 목적격조사로, 부사격조사를 목적격조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장석(1984)의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장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의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51.48%였고, 손일수(1989)는 2명의 청각장애아동의 생활을 분석한 결과 대상아동들이 구체어를 97% 이상 사용하였으며, 조사로 인한 문장의 오류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창욱(1987)의 연구에서도 청각장애학교 고등부 41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 대상 연구에서 조사의 오류가 가장 많았다. 농학생의 조사 오류는 부사격조사의 오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격조사의 생략, 목적격조사의 오용 순서로 나타났다(석동일, 유재이, 1992). 한효섭(2003)의 그림자료와 놀이상황에서 자발화를 수집한 청각장애아동의 조사 오류 유형은 생략, 대치, 왜곡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경우 대치 오류가 높게 나타났고, 다른 조사를 부사격조사로 대치시키는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류은정, 2005). 수화-구화의 이중 언어를 사용

하는 농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격조사 연구(송혜경, 2006)에서, 수화-구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부사격조사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목적격, 주격조사 순으로 오류를 보였다.

지금까지의 문장오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구 대상은 주로 청각장애 초·중·고학생들로 이루어졌고, 청각장애대학생이나 성인(강창욱, 2002)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문장오류 관련 연구에서도 조사사용에서의 오류 분석이 가장 두드러졌고, 그 중에서 격조사에서의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대학생들의 문장오류 분석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정규교육을 마친 청각장애대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문장 중에서 조사사용과 관련된 오류 특성을 출신학교(특수학교, 일반학교)별로 분석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각장애교육의 교수-학습전략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각장애대학생의 출신학교에 따른 조사 오류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청각장애대학생의 출신학교에 따른 격조사 오류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청각장애대학생 중에서 수반장애가 없는 3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 17명, 여자 15명이다. 특수학교 출신자는 16명이었고, 일반학교 출신자는 16명이었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분포사항은 <표 1>과 같고,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개인별 특성 <표 2>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분포사항

출신학교	대상 수	남자	여자
특수학교	16	8	8
일반학교	16	9	7
계	32	17	15

〈표 2〉 특수학교 출신 청각장애대학생의 개인별 특성

연구 대상	성별	연령	청력(좌, 우)	보장구	주요 의사소통수단
대상1	남	20	R/L NR	없음	수화
대상2	남	27	R/L NR	없음	수화
대상3	남	20	90/70	보청기	수화구화
대상4	남	23	R/L NR	인공와우	수화구화
대상5	남	21	R/L NR	없음	수화
대상6	남	23	92/102	보청기	수화
대상7	남	25	95/95	보청기	수화
대상8	남	20	90/80	보청기	수화
대상9	여	20	90/90	보청기	수화
대상10	여	21	85/90	보청기	수화
대상11	여	23	100/100	없음	수화
대상12	여	21	105/100	보청기	수화구화
대상13	여	24	90/90	보청기	수화
대상14	여	23	92.7/97.5	보청기	수화
대상15	여	22	70/80	보청기	수화
대상16	여	22	R/L NR	없음	수화

〈표 3〉 일반학교 출신 청각장애대학생의 개인별 특성

연구 대상	성별	연령	청력(좌, 우)	보장구	주요 의사소통수단
대상1	남	24	R/L NR	보청기	구화수화
대상2	남	22	R/L NR	보청기	구화
대상3	남	23	R/L NR	보청기	구화
대상4	남	22	100/100	보청기	구화수화
대상5	남	23	100/80	보청기	구화수화
대상6	남	21	R/L NR	보청기	구화
대상7	남	25	100/100	인공와우	구화수화
대상8	남	20	90/90	보청기	구화
대상9	남	23	85/72	보청기	구화수화
대상10	여	20	90/90	인공와우	구화수화
대상11	여	22	R/L NR	보청기	구화수화
대상12	여	20	R/L NR	보청기	구화
대상13	여	21	R/L NR	인공와우	구화
대상14	여	20	R/L NR	보청기	구화수화
대상15	여	20	R/L NR	없음	구화
대상16	여	21	R/L NR	인공와우	구화수화

2. 분석자료 표집방법

청각장애대학생들에게 일상생활관련 질문의 내용을 수화통역사의 수화통역과 함께 제시하였고 답변은 질문의 문항이 인쇄된 A4용지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질문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질문지 작성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30분에서 50분이 소요되었다. 질문의 내용은 첫째, 대학생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에 대해 말해보세요. 셋째,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정상적으로 들리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하고 싶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3. 분석 기준과 절차

자료 분석은 청각장애대학생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문장 중에서 비문에 해당하는 문장만을 선정하여 조사 사용상의 오류 특성을 밝혔다. 직접 작성한 문장 수는 총 766문장으로, 특수학교 출신 394문장, 일반학교 출신 372문장이었다. 이 중에서 179개의 오류 문장을 분석하였고, 특수학교 출신이 93문장, 일반학교 출신이 86문장이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조사 오류 총 수는 282개였고, 이 가운데 특수학교 출신은 149개, 일반학교 출신은 133개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류 문장 및 조사 오류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차 오류 문장 분석 기준

- (1) 글의 짜임이나 문단의 통사구조 등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제외하였다.
- (2) 단일 문장에서 보이는 특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사용상의 오류도 제외하였다.
- (4)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조사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유형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 (5) 글쓰기 예문을 문장 단위로 정리하여 조사에 오류가 있는 문장과 오류가 없는 문장으로 나누었다.
- (6) 조사에 오류가 있는 문장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2차 조사 오류 분석 기준

조사는 1차적으로 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분류한 다음, 이를 다시 대치, 생략, 첨가로 분류하였다. 격조사는 주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관형격 중에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격, 목적격, 부사격으로만 분류한 다음 대치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원생 2명과 연구자가 청각장애대학생이 직접 작성한 문장 중에서 무작위로 10문항을 선정하여 분석 기준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후 일치도를 비교하였다. 불일치 부분은 분석 기준을 재검토하고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치시켰으며, 이 같은 과정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5%의 신뢰도를 얻었다.

<표 4> 오류 분석 기준

분석항목		분석내용 예	
조사 오류 유형	대 치	격조사(주격) '이' 를 보조사 '은' 으로 대치	
	생 략	격조사(목적격) '을' 을 생략	
	첨 가	필요 없는 조사 첨가 (나는 버스를 타고를 간다)	
격조사 오류 유형	주 격	주격 → 주격	-가(는) → -이(은)
		주격 → 목적격	-가(이) → -을(를)
		주격 → 부사격	-가(이) → -에서(으로)
	목적격	목적격 → 주격	-을(를) → -가(이)
		목적격 → 목적격	-을 → -를
		목적격 → 부사격	-을(를) → -에서(으로)
	부사격	부사격 → 주격	-에서(으로) → -가(이)
		부사격 → 목적격	-에서(으로) → -을(를)
		부사격 → 부사격	-에서(으로) → -에(로)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조사 및 격조사 오류 특성을 출신학교(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두 집단에 대한 t-test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출신학교에 따른 조사 오류 특성 비교

청각장애대학생의 출신학교별 조사사용에서 오류 유형별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출신학교에 따른 조사 오류 유형별 특성 비교

조사유형	출신학교	N	M	SD	p
대치	특수학교	16	4.4887	7.47329	.261
	일반학교	16	3.2812	3.05982	
생략	특수학교	16	4.4887	6.25966	.441
	일반학교	16	4.3749	3.23522	
첨가	특수학교	16	.3375	.88506	.571
	일반학교	16	.6562	.96393	

*p<.05

청각장애대학생의 조사사용에서 출신학교 간의 조사 오류 유형별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대치와 생략은 같은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첨가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학교 출신의 경우는 생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대치, 첨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특수학교 출신의 조사 오류 유형별 발생 순위는 이춘섭(1978)의 생략, 첨가, 대치의 순서로 생략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강창욱(1987)의 대치, 탈락, 첨가 순서로 오류보인 것과는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 또한 손일수(1989)의 일기에 나타난 청각장애학생의 문장 분석에서 대치, 생략, 첨가의 순서로 오류율이 발생한 것과 석동일, 유재이(1992)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치, 생략, 첨가의 순서로 오류가 발생한 것과는 그 오류 발생 순서가 일치하였다. 그리고 언어연령은 4~5세에 맞춘 청각장애아동의 조사 오류 발생이 생략, 대치, 첨가로 나타난 것(한효섭, 2003)과 인공와우 이식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류은정(2005)의 연구에서는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것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학교 출신의 조사 오류 유형별 발생 순위는 선행 연구들(이춘섭, 1978; 강창욱, 1987; 손일수, 1989; 석동일, 유재이, 1992; 류은정, 2005)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청각장애대학생의 출신학교에 따른 조사 오류 유형별 발생 순위는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초·중·고 학생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나, 일반학교 출신들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대학생의 조사사용에서 출신학교 간의 대치, 생략, 첨가 등에 대한 오류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환경이 수화이든 구화이든 청각장애학생들의 조사 발달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강창욱(1987)의 연구에서 농학생의 문장이 한국어 체계와 다른 수화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국어의 문법적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능과 의미의 측면에서 특수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본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강창욱(1987)의 연구에서는 수화든 구화든 어느 의사소통수단을 형성해가는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수화든 구화든 어느 정도 의사소통수단이 형성되어있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수화환경에 조기에 노출되면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언어발달 단계를 통해 나이에 적절한 언어를 습득하고 발달시킬 것이라는 선행 연구(원성옥, 2002)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청각장애대학생의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 간의 대치, 생략, 첨가 등의 조사 오류별 발생률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각 유형별 조사 오류 발생률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조사 오류 발생 순위에서 초·중·고 학생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일반학교 출신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청각장애학교의 수화라는 특수한 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의 조사 오류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구화환경과 비교했을 때 조사사용 실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킬 만큼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출신학교에 따른 격조사 오류 특성 비교

청각장애대학생의 출신학교별 격조사사용에서 오류 유형별 특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출신학교에 따른 격조사 오류 유형별 특성 비교

격조사유형	출신학교	N	M	SD	p
주격	특수학교	16	1.5625	2.70724	.670
	일반학교	16	1.1875	2.19754	
목적격	특수학교	16	1.0625	1.12361	.072
	일반학교	16	.4375	.72744	
부사격	특수학교	16	2.3125	3.82481	.223
	일반학교	16	1.0625	1.23659	

*p<.05

청각장애대학생의 격조사사용에서의 출신학교별 오류 유형별 오류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격조사의 오류 발생 순위가 부사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주격, 목적격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반면 일반학교 출신의 경우는 주격, 부사격, 목적격 순서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를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는 이춘섭(1978)의 연구에서 부사격, 주격과 목적격의 순서로 오류율이 발생한 것과, 강창욱(1987)의 농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장 오류 분석에서 부사격, 주격, 목적격 순서로 오류율이 발생한 것, 손일수(1989)의 연구에서 부사격, 주격, 목적격의 순서로 오류가 발생한 것, 그리고 석동일·유재이(1992)의 청각장애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사격, 주격, 목적격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일반학교 출신의 경우는 선행 연구들(이춘섭, 1978; 강창욱, 1987; 손일수, 1989); 석동일·유재이, 1992)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청각장애대학생의 출신학교별 격조사 오류 유형별 발생 순위는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초·중·고 학생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나, 일반학교 출신들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대학생의 격조사사용에서 출신학교 간의 주격, 목적격, 부사격 등의 각각에 대한 오류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화이든 구화이든 주된 교육적 환경이 청각장애학생들의 격조사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송혜경(2006)이 수화사용은 일정한 기본적인 언어형식의 체계를 습득함에 있어 특히 구문구조습득이나 표현에 방해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차이로, 선행 연구(송혜경, 2006)가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수화만을 사용하는 집단과 구화만을 사용하는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반해, 본 연구의 청각장애대학생들은 대부분 어느 특정 의사소통수단을 사용하기보다 수화와 구화를 모두 조금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초기에 수화를 사용하더라도 구문을 형성해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에 있어 수화가 구화발달에 저해하지 않고(Schlesinger, 1970), 독해능력 향상에 수화가 방해요인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 하는 선행 연구(Meadow, 2005)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은 청각장애대학생의 출신학교에 따른 격조사 대치 오류 유형별 특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출신학교에 따른 격조사 대치 오류 유형별 특성 비교

격조사 대치 유형	출신학교	N	M	SD	p
주격 → 주격	특수학교	16	.5000	1.9545	.748
	일반학교	16	.6250	1.08781	
주격 → 목적격	특수학교	16	.5625	1.038078	.340
	일반학교	16	.2500	.77460	
주격 → 부사격	특수학교	16	.3750	.71880	.592
	일반학교	16	.2500	.57735	
목적격 → 주격	특수학교	16	.5000	.73030	.180
	일반학교	16	.1875	.54391	
목적격 → 목적격	특수학교	16	.1250	.34157	1.000
	일반학교	16	.1250	.34157	
목적격 → 부사격	특수학교	16	.4375	.625915	.091
	일반학교	16	.1250	.34157	
부사격 → 주격	특수학교	16	.5625	1.31498	.610
	일반학교	16	.3750	.61914	
부사격 → 목적격	특수학교	16	.5000	.63246	.144
	일반학교	16	.1875	.54391	
부사격 → 부사격	특수학교	16	1.2500	2.46306	.257
	일반학교	16	.5000	.81650	

*p<.05

청각장애대학생들의 격조사에서 대치 오류별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먼저 주격 조사의 대치 오류 발생률 순위는 주격조사를 목적격조사로 대치시키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격조사간의 오류 형태였다. 하지만 일반학교 출신의 경우 주격 조사간의 오류 형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격에서 목적격, 주격에서 부사격이 같은 비율의 오류 형태를 보였다. 이를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특수학교 출신의 청각장애대학생의 경우, 강창욱(1987)의 주격에서 목적격조사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석동일·유재이(1992)의 연구에서 주격조사를 목적격조사로 오용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격조사간의 오류 형태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일반학교 출신의 청각장애대학생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목적격조사의 대치 오류 발생 순서에서는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 모두에서 목적격을 주격으로 오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목적격을 부사격으로, 목적격간의 대치하는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학교 출신의 경우는 목적격간의 대치와 목적격을 부사격으로 대치하는 오류비율이 같게 나타났다. 이는 강창욱(1987)의 연구에서 목적격에서 주격으로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특수학교 출신의 조사 오류 발생률은 일치하였으나, 일반학교 출신의 오류 발생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석동일, 유재이(1992)의 연구에서 목적격 조사간의 오류가 가장 많게 나타난 것과는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의 오류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부사격조사의 대치 오류 발생 순서로,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 모두 같은 비율로 부사격조사간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부사격에서 주격조사로, 부사격에서 목적격조사로 대치시키는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강창욱(1987)의 연구와 석동일, 유재이(1992)의 연구에서 부사격조사간의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청각장애대학생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등의 각각에 대한 대치 오류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환경이 수화이든 구화이든 청각장애학생들의 주격, 목적격, 부사격조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초기의 수화사용이 구문을 형성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수화가 구화발달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Schlesinger, 1970; Meadow, 2005)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각장애대학생의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 간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등의 격조사에 대한 오류 발생 비율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각 격조사 오류 발생률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격조사의 대치 오류 발생 순위에서도 출신학교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각 격조사의 대치 오류 발생률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격조사 오류에서 초·중·고 학생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일반학교 출신들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청각장애학교의 수화라는 특수한 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의 격조사의 오류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구화환경과 비교했을 때 격조사의 사용실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킬 만큼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청각장애대학생 중에서 수반장애가 없는 32명을 대상으로 직접 작성한 문장을 분석한 것으로, 청각장애대학생의 출신학교별 조사사용 오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대학생의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 간의 대치, 생략, 첨가 등의 조사 오류별 발생률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각 유형별 조사 오류 발생률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조사 오류 발생 순위에서 초·중·고 학생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일반학교 출신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청각장애대학생의 특수학교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 간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등의 격조사에 대한 오류 발생 비율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각 격조사 오류 발생률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격조사의 대치 오류 발생 순위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각 격조사의 대치 오류 발생률에서는 출신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특수학교 출신의 경우 격조사 오류에서도 초·중·고 학생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일반학교 출신들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각장애학교의 수화라는 특수한 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의 조사 오류 및 격조사 오류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구화환경과 비교했을 때 조사사용 및 격조사 사용 실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킬 만큼 지장을 주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몇 가지의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수가 작아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문장을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 오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어미, 문장성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특수학교의 출신에는 구화학교 출신이 전혀 없었으므로, 추후 구화학교 출신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강창욱 (1987). **농학생 문장의 문법적 특징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강창욱 (1994). **청각장애 학생 언어의 통사구조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강창욱 (2002). 청각장애 성인 언어의 문장 구성론적 특징. **난청과 언어장애**, 25(2), 151-189.
- 김미숙 (2004). **다운증후군 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용세 (2009). **인공와우이식 청소년과 건청청소년의 쓰기에서의 조사사용비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주영 (2002). **청각장애아동과 건청아동의 보통명사에 대한 의미론적 발달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남기심, 고영근 (2007).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류은정 (2005). **인공와우 이식 아동의 조사사용특성**.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 박덕유 (2002). **문장론의 이해**. 한국문화사.
- 변선영 (2003). **이야기 쓰기에 나타난 건청아동과 청각장애 아동의 결속표지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석동일, 유재이(1992). 청각장애학생의 조사 사용능력. **재활과학연구**, 10(1), 25-35.
- 손일수(1989). 일기에 나타난 청각장애 학생의 문장 분석. **난청과 언어장애**, 12(1), 49-65.
- 송혜경 (2006). **수화-구화 이중언어 사용 청각장애 아동과 구화 사용 청각장애 아동의 격조사 사용 비교**. 미간행 석사청구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시옥순 (2001). **청각장애 학생의 문장 오류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우장석 (1984). **그림이야기 언어검사(PSLT)에 의한 농학생의 문장능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유재이 (1990). **농학생의 조사사용 및 어미활용 능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전주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원성욱 (2002). 농아동의 수화언어습득과 언어교육.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1(2), 77-100.
- 이경희 (2002).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적 지도가 청각장애 아동의 쓰기 발달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관규 (2002). **학교문법론**.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이길용 (2002). **멀티미디어 언어 학습 프로그램이 청각장애 학생의 읽기·쓰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춘섭 (1978). 청각장애아의 조사오용에 관한 연구. **승의논총**, 3, 5-39.
- 하현주 (2003). **중학생들의 문장오류실태분석과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효섭 (2003). **청각장애 아동과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문법형태소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Brown, J. B. (1984). Examina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in the language of hard-of-hearing children. *The Volta Review*, 229-238.
- Day, P. S. (1986). Deaf children's expression of communicative inten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9, 367-385.
- Genovese, E., Galizia, R., Gubernale, M., Arslan, E., Lucangeli, D. (2005). Mathematical vs. Reading and Writing Disabilities in Deaf Children: A Pilot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umerical Knowledge. *Advances in Learning and Behavioral*

- Disabilities, Volume, 18, 33-46*
- Lynas, W. (2005). Controversies in the education of deaf children. *Current Paediatrics, 15*, 200-206.
- King, C. M., Stephen, P., & Quigley, S. P. (1985). *Reading and deafness*, San Diego, California, College-Hill Press.
- Kyle, J. (1980). Reading development of deaf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3*, 86-97.
- Marco, M., Colle, L., Bucciarelli, M. (2007). Linguistic and extralinguistic communication in deaf children. *Journal of Pragmatics, 39*, 134-156
- Marschark, M., & Harris, M. (1996). *Success and failure in learning to read: The special case of deaf children*. In C. Cornaldi & J. Oakhill(Eds.),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processes and intervention*. Mahw,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adow, K. P. (2005). Early manual communication in relation to the deaf child's intellectual social, and communicative functioning, *Jor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0(4)*, 321-329.
- Moores, D. F. (1987). *Educating the deaf*.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Moseley, M. J., & Bally, S. J. (1996). *Communication therapy: An integrated approach to aural rehabilitation with deaf and hard of hearing adolescents and adults*. Washington: Gallaudet university press.
- Ouellet, C., & Cohen, H. (1999). *Speech and language development following cochlear implantation*. *Journal of neurolinguistics, 12*, 271-288.
- Pien, D. (1985). The development of language functions in deaf infants of hearing parents. In: Martin, D. (Ed.) *Cognition, Education, and Deafness*, vol, 2, Gallaudet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30-33.
- Quigley, S. P., Peter V. Paul. (1984). *Language and deafness*. San Diego, California, College-Hill Press.
- Schlesinger, H. S. (1970). "Deaf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Wonder land", Report of the Processing of the Forth-Fourth Meeting of the Communication of American Instrucators of the Deaf. D.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arch, 10-12.
- Simmons, A. A. (1962). A comparison of the type-token ratio spoken and written language of deaf and hearing children. *The Volta Review, 64*, 417-421.
- Wilbur, R. B., & Quigley, S. P. (1975). Syntactic Structure in the Written Language of Deaf Children. *The Volta Review. 77(3)*, 194-203.

A Study of postposition misuse by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Ok, Jung Dal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ostpositions in sentences that thirty two hearing impaired collage students made out. The sentences are analyzed with T-test using SPSS 12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regular school graduates and special school graduat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ranking difference between the regular school graduates and special school graduates in their postposition misuse such as replacement, omission, and addition.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cidence in postposition misuse of regular school graduates and that of special school graduates. In the case of special school graduates, their postposition misuse was similar to the specia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case of regular school graduates, the result was different from the special school graduates'.

Second, there is a ranking difference between the regular school graduates and special school graduates in their subjective postposition, objective postposition and adverb postposition misuse.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cidence in those morphemes misuse of regular school graduates and that of special school graduates. Besides, in the case of replacement in morphemes misuse, there is a ranking difference between the regular school graduates and special school graduates. On the other sid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cidence in replacing each morpheme misuse of regular school graduates and that of special school graduates. In the case of special school graduates, their morphemes misuse was similar to the specia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owever, in the case of regular school graduates, the

result was different from the special school graduates'.

In conclusion, there is a typical pattern in postposition and morphemes misuse of hearing impaired college students using sign language. Compared with a speech education environment, the sign language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s' postposition and morphemes use ability. It means that the sign language doesn't interfere with their language acquisition.

Key Words

: hearing disorder, college student, deaf, postposition, sentence analysis